



3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음 11월 12일) 제38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올 연말에도 한파 녹였다

‘2026년 새해,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어제 오후 전주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
26년째 이어진 낯냄 없는 사랑 전해
현금 9004만여원과 함께 메시지 남겨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낯냄 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세밀 한파를 녹였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3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40~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올해로 26년째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통화 내용은 “기차촌 한식부페 앞 소나무에 박스 1상자 두었으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통화 내용에 따라 확인해보니 소나무 주변에 A4용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9,004만 1,60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6년째 총 27차례에 걸쳐 몰래 보내 준 성금은

총 11억3,488만2,520원에 달한다. 이날 천사가 남긴 A4용지에는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몰래 놓고 간 성금은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긴 메시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교를 통해 58만 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옛 중노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사라져 불리게 된 이름으로, 이후에도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남몰래 선물을 이어 오고 있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가 베푼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민에 대한 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도 수여해왔다.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



30일 전주 노송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얼굴 없는 천사’가 전달한 기부금을 정리하고 있다.

(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축제를 개최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송동 특화사업으로 매월 4일을 ‘얼굴 없는 천사의 날’로 정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이·미용 봉사 △문화누리카드 장터 개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도 했다.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23년 처음 제정된 HD현대이노비상의 ‘대상’과 1%나눔상의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시상금 2억 원은 전주시에 전달돼 ‘얼굴 없는 천사’가 평소 밝힌 뜻에 따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다.

채원선 노송동장은 “200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얼굴 없는 천사’의 바램대로 나눔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與民由之

2026년도 전북도정

사자성어 ‘여민유지’

(與民由之)

도민과 함께 옳은 길

가겠다는 의지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26년 도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여민유지(與民由之)’를 선정했다. 도민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여민유지’는 맹자(孟子) 등공공 하편에 등장하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도(道)를 행한다”는 구절에서 비롯됐다. 정치란 백성이 공감하고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자성어의 취호는 세계사에 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운영을 집행위원장(호암)이 맡아 전북의 도약을 표현했다.

이번 ‘여민유지’ 선정에는 민선 8기의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도전정성’으로 보여준 도정의 기백과 ‘초지일관’으로 다져온 흔들림 없는 핵심을 계승해 도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도정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동행의 의지도 담았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라는 민선 8기 비전을 구현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는 실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자치도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왔다.

2026년은 도정의 성과를 도민과 나누며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완성하는 해가 된다. 특히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먹거리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며, 피지컬시티·이차전지·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의 체질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병오년 새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1월 2일 신년호 발행합니다.

“향후 도정 4년, 전북의 골든타임”

민주 이원택 의원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재생에너지 활용
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절호의 기회... 새 도약 시대 개척”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사임)은 “이재명 정부에서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반드시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향후 도정 4년은 전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팔팔 뭉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이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해상풍력 발전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것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의사를 보인 만큼 새만금 시대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인허가 지원과 갈등 조정, 기반시설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으로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관련

추진 체계가 구축된 것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줄 핵심축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6.5년 이내로 줄이고, 비용 절감과 계통 효율화를 추진해 발전단가를 오는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 해상풍력이 사업 지원과 이해관계 충돌 등 구조적

병목에 가로막혀 온 것을 감안하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연 4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제시한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완료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기가와트)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기회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도 정부부지사로 재직 당시, 국회와 산업부 어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을 주도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이와 함께 전북 해상풍력 발전 전략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중심 전략 전환 △군산항 중심의 설치·운영·유지보수(MRO) 산업 생태계 구축 △주민·어업인 참여형 이익공유모델 정착 △진력계통·인허가 윈윈 시스템 지원체계(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새만금·군산으로 이어지는 황금노선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는 전북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발전 전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